인올가닉이란 말은 탄소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화학적 의미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정부가 유기농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usda 미 유기농 인증을 받으려면 95프로의 유기농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유기농 마크는 최소 70프로 함유량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유기농이라 좋고 무기농이라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기농과 무기농의 차이는 사실 제품 자체보다 제품 생산 과정에 있습니다. 영양 제품들도 유기농이 선호되는 이유는 원료 재배 과정 때문입니다. 뒷뜰에서 농약 없이 유기농법으로 재배하면 유기농이고 살충제, 화학 비료를 사용하면 무기농으로 보통 간주합니다. 그러나 무기농법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화학적으로 나쁜 것들이 많지만 유무기농의 차이를 구분하고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내튜럴의 의미는 보통 천연 원료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인공 감미료, 방부제, 향미료 등을 가미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유기농이냐 아니냐를 네츄럴이냐 아니냐로 착각해서 판단하면 안됩니다. 유기농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네이버 또는 위키피디아, 아니면 구글링하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샤클리 아이들 목욕과 로션 제품이 70프로 정도만 유기농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지....우리가 사용하는 샴푸, 화장품, 로션은 non vegetable이기 때문에 인올가닉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면 실리콘 성분도 사용되구요. 근데 70프로 이상까지 vegetable인 유기농 성분을 이용한 것은 대단히 좋은거라 봅니다. 거품은 일단 생겨야겠죠. 이것도 100프로냐 아니냐의 컨셉을 네츄럴에 대입해야 하는 것이지 유기농 무기농은 아닌 것같습니다.